

지 상 토 론

우리는 왜 하이브리드豚 수입을 반대하는가 ?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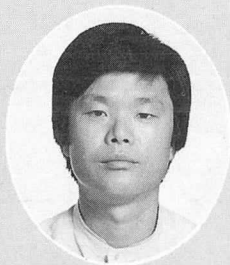
그간 업계의 자숙에 의하여 수입 중지되어 오던 하이브리드돈이 최근 경기도 소재의 종돈장이 영국의 PTC 회사와 연계하여 합법적이라는 미명하에 1994. 11월 초순 대량 수입 과당경쟁하므로써 제2, 제3의 하이브리드돈을 수입하는 계기를 조성, 양돈산업 전체가 붕괴될 위기를 맞고 있음은 업계 전체를 위하여 마땅히 규탄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 강력히 제재되어야 한다.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인 우량 종돈의 개량증식에 의한 유전자원의 개량증식 보급을 하는 종돈장은 축산법에 의해 의무사항 규제를 받고 일반종돈(종돈용 잡종) 증식 보급 농장에 대하여 의무규제가 없는 것은 조속히 개정 보완되어야 한다.

2. 종돈 수입이 국내 양돈산업에 끼칠 영향

돈육 수출국인 대만과 종돈 수출국인 덴마크는 왜 자국 순종돈만 고집하고 외국의 하이브리드돈을 외면하는가? 이는 좁은 국토에서 양돈인 서로가 이해하고 단결하며 협동공존하려는 양돈인들의 정서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어 있음을 바로 알고 스스로 단합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김수남 사장
(은성축산)

세계 각국은 유전자원 확보에 혈안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원의 무기화에 의한 국가적인 생존전략 때문이다. 고능력의 순종돈은 원자재로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수입이 불가피하나 자유경쟁을 빙자하여 소모품인 하이브리드돈의 수입은 외화낭비는 물론 공익적 측면에서 부당행위자로서

양돈산업의 경쟁력은 근본적으로 종돈의 능력에서부터 출발하며 종돈의 능력은 바로 국가적인 자원이라 하겠다. 이를 위하여는 우량한 종돈의 보유와 등록 검정을 통한 끊임없는 개량과 효율적인 보급은 양돈산업의 잠재력인 동시에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대규모 종돈회사의 하이브리드돈의 국내시장 잠식은 근본적으로 단기간내에 국내 영세 종돈생산 농장의 존폐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양돈산업의 자멸과 영구돈육수입국으로의 전략과 함께 유전적 식민지화가 심히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양돈의 주기적인 격심한 가격 하락과 영세 양돈 농가들에 의한 기업 양돈업 폐지의 요구가 뒤따르자 정부에서는 불황시에 대처코져 축산법에 등록과 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축산법 시행규칙 제4장 제25조(종돈업의 등록 등)와 제28조(축산업의 등록, 허가규모 및 절차 등)를 제정 고시한 바 있다. 넓은 의미의 종돈이라함은 순종, 하이브리드 또는 합성돈 모두가 종돈이라고 할 수 있으나 특히, 국내 축산법에 명시된 종돈의 정의는 순수 품종으로 정의



하고 있으므로 국내 우수 종돈의 능력개량에 의한 하이브리드 생산 이용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시장에 맞는 고품질의 돈육생산 의지로 정책을 이해하여 왔다.

3. 해결해야 할 과제

그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정부의 각종 제도와 규제를 수용하면서 종돈 개량을 위한 사업에 꾸준히 동참 노력한 결과 일본에 돈육을 수출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역사상 종돈으로 70여두를 수출하였음은 정부의 순종개량정책의 기조가 다소 세워져 가고 있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원자재인 종돈산업의 현실을 직시해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종돈개량의 민간조직과 체계, 종돈의 유통문제는 지

극히 원시적이어서 일대 개혁을 하지 않으면 하이브리드돈 수입 못지 않게 정부의 투자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양돈관계자들은 모두가 이구동성 인지하면서도 개선되지 못하는 것이 업계 현실이기도 하다.

현재 명목상 유지되고 있는 유전자원 수입협의회가 학계, 업계, 무역업체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업계주도로 대폭 개편하여 민간 주도로 양돈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항시 여기에서 건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양돈안정 대책에 대한 재조정, 종돈 개량체계, 종돈 유통문제, 하이브리드돈의 수입문제 등 정책에 의한

제도적 대책 없이는 중소종돈장의 생존은 암담하며 속수무책으로서 자포자기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로서 정부의 효과적인 조치가 있어야겠다.

종돈과 생돈의 차이점과 생돈은 왜 소모성인가?

정부에서 고시한 축산법(제6조)에 명시된 종축의 정의 이외에 속하는 돼지, 즉 하이브리드돈과 합성돈을 품종의 순수한 특징과 혈통이 계속적으로 계대되지 않기 때문에 종축이 아님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 이유로서 축산법에서의 종돈이란 품종단위로 혈통에서 경제형질이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를 혈통등록, 심사, 검정의 수단에 의하여 선발하고 이를 후대에 계획교배에 의하여 우수한 형질을 전달하여 생산능력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며 하이브리드돈에서의 잡종강세는 주로 품종간의 교잡에 의해 우성유전자의 작용에 의한 작용에 의한 상위성 유전자 효과가 형질의 발현을 촉진하여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양(量)과 질(質)을 향상하는 수단일 뿐 그 능력이 후대에 유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을 개량의 효과로 오인하여서는 아니된다.

합성돈은 4개의 합성계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4원교배종

(Double Cross)을 말하며 하이브리드돈과 합성돈과의 차이는 하이브리드돈은 자기들끼리 교배하여 동일한 자손을 다시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비하여 합성돈은 동일한 집단내에서 자기들끼리 교배하여 동일한 자손의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981년도에 경북 칠곡군의 모회사에서 수입한 바브콕 합성돈 333두(암 315두, 수 18두) 4계통 수입이 과연 양돈산업 기여도에 있어 성공작인가? 또는 실패작인가? 왜 실패로 끝났으며 그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바로 외국의 사례만 보고 능력과 시대적인 배경은 무시한채 수입되었기 때문이며, 육종배경, 시설, 환경, 사료 등에 있어 우리의 현실에 적합치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 예로 특히 육종에서의 교배 제한을 합성돈에서는 강조되고 있으나 사양가들의 이해 부족으로 교배를 문란케하여 돈육의 품질저하에 의한(등지방이 극히 두꺼움) 실패를 들 수 있다. 각국의 돈육생산의 기본은 국민의 소비, 요구에 따라 창출되므로 외국의 합성종이 육량이나 생산효율면에서 우수하다고 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는 할 수 없다.

4. 결론

돈육수출국인 대만과 종돈수출국인 덴마크는 왜 자국의 하이브리드돈만으로 세계에 수출하며 외국의 하이브리드돈과 합성돈을 외면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생고기 즉석구이의 서비스가 주종을 이루어 품질이 우수한 육질(마브링)을 선호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대부분 육가공용으로 많이 소비되므로 합성돈의 취약점이며 장점인 육량이 많고 딱딱한 돼지고기라도 그리 문제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소비자 요구에는 합성종이 그리 적합치 못한 이유라 하겠다. 이는 바로 소비계층의 입맛에 충실하겠다는 프로 근성의 국민성이라고 사료되며 좁은 국토에서 양돈인 서로가 협동 공존해야만이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다는 신념이 이들 나라의 정서로서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끝으로 국민의 기초 식량산업인 생명산업은 경제논리로만 비교하여서는 안되며 원자재 생산농장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정부와 업계는 적극 육성보호하여야 하고 하이브리드돈 수입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